

길을 묻는 이에게



대행스님

독자님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FAX: (02)737-0697/8
●PC통신: 인터넷부다피아
http://www.buddhapia.com/mem/ha
nmaum

법공양 페이지

“자기가 자기를 못믿으면 누굴 믿나”

15면에서 계속

7각 8식 9해탈의 뜻

문 법문을 읽던 중에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여쭙니다. 6근 6적이 작용이 공해서 7각이고, 8식 9해탈도 있다고 하는데 무슨 의미이지요?

답 그런 것을 이론적으로 따져 말할 게 아니라 6근 6식이 공했으니 그대로 7각이 되고 7해탈도 되고 7할공법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그대로 들어가는 법이지요. 이 선(禪)에서는 이렇다 저렇다, 무슨 6근이 어떻게 6적이 어떻게 하는 게 하등 상관이 없어요. 그런 거 따지다보면 어느 세월에 내가 나를 알 수 있었습니까?

거름 말하지만 일체가 다 공했어요. 고정법이 없이 돌아가기에 어느 것을 할 때에 나라고 할 수 없으니까 부처라고

소. 나부터 믿고 나부터 알아야 상대를 알고 상대를 알아야 우주를 알고 세계를 알고, 내 나라도 생각할 수 있고 내 가정도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누가 어떻게 믿습니까 하고 물으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자기가 자기를 못 믿는 사람이 어떻게 남을 믿고 돈 꿰주고 보증 서주다가 망하게 되었다고 온통 난리를 치는 나? 어떻게 자기를 못 믿는 사람이라면 이 세상에 믿을 사람이 있다는 것이냐?

아프다고 대신 아파줄 수 없고 죽게 되었다고 대신 죽어줄 사람 없고, 대신 먹어줄 수도 없고 대신 자를 수 없고 대신 통 뉘줄 수 없단 말입니다. 자식과 부

주인공을 영원한 친구로 믿으세요 “주인공에 놓아도 잘안돼요”하는 건 믿음 약하고 진실치 못해서지요

모지간이라도 대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못 믿어요? 어쩌서 못 믿는다 하겠습니까.

사람에게 자성신이 없다면 그 지각, 직감이라는 것도 없고 그냥 목석인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믿어야지요. 내가 있음으로써 상대가 있는 것이고 세계가 벌어졌는데, 내가 없으면 아무 것도 없고 무효인데 나를 어쩌서 믿지 못합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말해 주어도 그냥 물질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속에 얽혀서 이견 이애라 한다 저전 저래야 한다고 줄줄이 착을 듭니다. 아주 고집을 부린단 말입니다.

남자를 받지 않으면 이사를 못 간다고 고집, 삼재가 들었으니 뭘 하면 안된다고 고집, 팔자운명 때문에 어떻게 고집, 업보가 있다는 고집, 유전이 있다는 고집, 온통 고집을 부리고 생활하다가 그걸 뭇씩씩서 거기에 걸려 넘어진단 말입니다.

이 고집을 다, 몽땅 한순간에 놓으십시오. 예전에 어느 스님이 날 보고 이르시디다. ‘눈을 뜨고 삼년만 죽 쉬어라’ 자 거라’ 이 말씀이죠. 하하하...

눈을 뜨고 어떻게 삼년을 잡니까? 여러분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철저하게 믿지 못하기에 갈광질광하는 겁니다.

내가 어렸을 때 무척 가난했습니다. 일제시대였죠. 그때 먹는 거라고는 우거지 에다 건빵 같은 것을 넣고 쪽쪽 끓여서 한 그릇씩 먹고 허기를 때웠는데 다른 집들은 보리밥 해 먹는 걸 보았습니다. 어린 마음에 ‘남들은 그렇게 해먹는데 우린 이런 걸 먹나’ 투정을 부렸더니 하시는 말씀이 ‘그 집 쌀밥보다 우리 집 쪽죽이 더 좋느니라’ 하신단 말입니다.

그때는 그게 전부당부장이었지요. 그런데 보세요, 못 낫든 잘 낫든 못 배웠든 잘 배웠든 내 부모가 제일인 것처럼 나 자체가 제일인 것입니다.

내가 있음으로써 나 주인이 있고, 그 주인이 있음으로써 나를 끌고 다닌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아시고 활을 쏘실 때 자기한테 진짜로 쏘십시오. 그러면 일천 만가지가 다 녹아서 스러져 버리고 과거 업보성 윤회성 유전성 세균성, 이런 것들이 다, 물론 그냥 녹아버립니다.

했던 겁니다. <반야심경>에 색이 공이요 공이 색이다 했는데 그게 그대로,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이론 따지고 맨날 그리 해보았자 헛수고예요. 그래가지고야 어느 때 맛을 볼 것이며 써를 되살아서 되나 오고 되먹일 수 있었습니까?

노사나부처님 어느 분인지

문 경서를 읽다보면 석가모니부처님, 노사나부처님, 비로자나부처님이 나오십니다. 청정법신하고 석가모니불은 분명히 비교를 해서 알 수 있었는데 노사나부처님은 모르겠습니까?

답 다 이름일 뿐입니다. 집에서 여보! 하면 남편 노릇하고 아버지! 하면 아버지 노릇하고 애야!하면 아들 노릇을 하지요? 자동적으로 말입니다. 그냥 뜻이 그게 다 한마음에서 나온 이름입니다. 그래서 수만명이 깨우쳤다 해도 한마음도리에선 부처는 하나다 이 소립니다.

그러기에 또 부처라고 이름하면 부처는 하나도 없다는 결론이 나오십니다. 그 이름을 가지고 얽매이지 마세요. 이름에

붙들어 매이면 어떻게 아버지 노릇을 했다가 남편 노릇을 하고 사위 노릇하고 형님 노릇 아들 노릇을 하셨습니까?

이름에 매이지 말고 놓고 돌아가면 아주 다양하게, 그냥 자동적으로 이것저것 다 여여하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과거 미래 현재 하나인 까닭

문 과거는 없다, 미래도 없다, 과거 현재 미래를 하나로 보라는 말을 잘 모르겠습니다.

답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 없을 테고 과거는 지금 이 배낭 속에 다 짊어지고 나왔으니 없죠.

지금 이 배낭 속에 말입니다. 수습역

그놈 짓이다’ 하고 놓으면 그곳이 비워지고 새것이 담기고 그럴텐데 그렇게 해 나가다보면 자기가 자기를 잘 알게되고 자기가 어떻게 어떤으로 작용하는지를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본래 청정한 줄을 어찌 알았으리까, 만법을 들고 밤을 어찌 알았으리까 하는 말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림 · 최주현

마리가 들어 있다고 해도 되지요. 그게 인연도리입니다. 과거의 인연에 따라 동친 ‘중생 덩어리’, ‘고(苦) 덩어리’, 그 것이 바로 지금의 자기를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한마음으로 동친다면, 한마음으로 동쳐서 그 자리에 다 놓는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컴퓨터에다 비유한다면 과거에 입력한 것이 인(因)이 되어 현실의 업보로 자꾸 나오는데 거기에다가 ‘다 놓아야 하는 것이구나!’ 하고 믿고 놓는다면 앞서 입력한 것은 녹아서 없어져 버리겠지요. 새 것을 입력하니깐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

지 지금은 안된다고 합니다. 스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매번 비슷한 질문마다 말씀을 드 리지만 무엇보다도 믿음이 중요합 니다. 말로만 믿는다고 하는 그런 헛탕 믿음이 아니라 ‘주인공! 너 믿어 할 수 있어!’ 하고 진짜로 믿는 것 말입니다.

주인공을 영원한 내 친구로 믿는 정도 는 되어야 하지요. 그 정도는 믿어야 정 말이지 내가 죽으면 너도 무효가 되고 네가 없다면 나는 송사리 된다는 그런 절실한 마음이 생길 게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배낭속에 과거를 다 짊어졌으니... 급한불 켜다고 믿음 약해지면 또 되풀이

갈광질광해서는 안됩니다. 내가 병원에 가지 말라는 게 아니라 어딜 가든지 이 시자를 끌고 다니는 건 나다. 네 증을 끌고 다니면서, 네 심부름꾼을 부리면서 어떻게 기침이 심하고 눈이 안보여서야 제대로 심부름꾼을 하였는가? 그래서 쓰겠느냐? 그런 믿음을 가져보세요.

어제 분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스님, 주인공 자리에 놓고 맡겨도 잘 안되거든 요’ 이랍니다.

그래서 말입니다만 그것도 믿음이 약 해서입니다. 마음이 진실치 못한거지요. 어떻게 해서 급한 불만 켜다 싶으면 그냥 해이해집니다. 해이해져서 바쁘게 먹고 살고 일하고 하는 것만 알지 또 흐 지르지한단 말입니다. 그러고는 잘 안되 네요 합니다. 그게 다 누구 탓이었습니까? 다들 각자의 탓이었지요.

급할 때는 ‘스님 어찌하오리까’ 하다가 도 좀 나아졌다 싶으면 해이해져서 마음 공부는 또 잊어버리고 ‘아이구 이거 일을 해야지’ 한단 말입니다.

아니, 일 다하고 죽는 사람 보았습니까? 죽으나 사나 자기 주인공이 자기를 끌고 다니는데 가는 길을 알아야 오는 길도 알 수 있고 온 것을 알아야 눈으로 볼 줄 알고 귀로 들을 줄을 안다고 했는데 말입니다.

그러니 진실로 믿고 좀 지긋이 인쇄하면서, 당당하고 쾌기있게 믿고 나가야 합니다. 조금 편찮다 싶으면 해이해지고

‘그까짓 마음공부야 뭐’ 이러는데 그러다 보면 자기가 그냥 그까짓 것이 되고 맙니다.

공부한다면서 그런 분들 참 많습니다. 영원한 내 자성을 찾기 위해서도 그래선 안됩니다.

한마디 더 하지요. 이 몸 속에, 꾸러미 속에는 말입니다. 과거에 살던 인연들이 다 품쳐 있는데 이 몸 속의 중생들은 나쁘고 좋은 걸 모르고 그냥 거기서 일어 날 뿐입니다. 그러니까 나쁜 좋은 거기서 일어난 것 거기다 맡기고 그 도리를 믿고 일체를 품쳐서 ‘한마음 너 밖에 해결할 수 없다’ 할 때에 비로소 자기가 자기를 죽이는 법은 없다 이 말입니다.

가족끼리 충돌 찾습니다

문 스님, 부끄러운 말씀이지만 제 집안 사정이 매우 심각합니다. 부모 자식기간에도 서로 만나면 죽일듯이 충돌을 하니 이게 무슨 법인가 싶습니다. 인과응보라는 생각도 해 보지만 한편으로 천도재를 지내도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한 말씀 해주십시오.

답 주인공 그 놈더러 해결하라고 하세요. 허허 네 놈이 과거로부터 날 이끌어 왔고 그 쪽도 과거로부터 그 쪽을 이끌고 왔으니 네 놈들끼리 해결하라고 말입니다.

자기 마음의 주인공만이 양면에서 다 완회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저 내 한마음 주인공만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을 굳게 가지세요. 그래야 인과나 응보니 하는 것도 녹습니다. 그렇게 해보세요. 무조건입니다.

예전에 있었던 일을 하나 얘기해 드리지요.

어떤 삼형제가 있었는데 6·25 때 피난을 가면서 병든 아버지를 놓아두고 그냥 갔습니다. 그 아버지가 그냥 죽게되자 마을 사람들이 담요에 돌을 달아서 아무렇게나 뒷산에 묻어 버렸습니다.

그랬는데 이 형제들이 결핍하면 서로 싸우고, 싸움을 해도 마치 원수진 것처럼 폭행을 해서 상처를 입히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 어머니가 찾아와서 하소연을 하길래 그랬습니다. ‘그래 아파 드러누운 사람을 저희들만 살렸다고 산 채로 놓아두

은 헛갈리기도 할 뿐 아니라 중도에 포기하기 쉬운 게 아닐까요? 예수께서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신 것처럼 근기와 그곳에 따라서 열불이나 기도 또는 지·관법을 가르쳐 조금씩 진리의 길로 나아가게 해야 하지 않을까요? 부처님께서도 몇갑생을 거치며 수행을 했는데 우리같은 중생이야 더하지 않았습니까? 가르침 바랍니다.

부처님께서도 일찍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너 자신을 믿고 너 자신에 의지해서 수행을 하라고 말입니다.

염불도 좋고 기도도 좋습디만 내가 나를 믿고, 내가 먹고 자고 숨 쉬는 거기를 ‘나’를 발견하라고 하는데 거기에 어렵고 힘든 게 어디 있으며 높고 낮고는 어디 있습니까?

더도 덜도 말고 여기까지 너를 이끌고 온 그 놈을 믿고 너만이 할 수 있어! 하고 놓고 가라는데 그게 어렵다면 어렵니까?

염불이나 기도를 하라 하면 그건 쉽고 고 보시는 모양인데 열불이나 기도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지 바깥에 기대는 것은 아닙니다. 밖으로는 허구한 날 빌어요

밖으로 허구한 날 빌어보았자 공덕이 없습니다 쉽든 어렵든 안으로 들이대야죠 내 근본 주인공 믿고 모든 걸 거기서 해결하십시오

았자 아무 공덕이 없습니다. 그러나 쉽고 어렵고를 떠나서 안으로 들이대라, 너를 이끌어 왔고 너를 이끌어 갈 한마음 주인공에다 들이대라고 할 밖에도.

사람들은 이 동몽이를 기준으로 해서 나다 너다 하고, 내가 했다 내 것이다 하는데 그 시자로서의 내가 아닌 한마음 주인공, 말하자면 내 근본인 뿌리를 믿고 모든 걸 거기서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열반하실 적에 이 육신의 나를 믿지 말고 너 자신에 의지하고 너 자신을 믿어라 하신 말씀은 바로 너 자신을 이끌어 온 참나 주인공을 믿고 주인공을 의지하라고 하신 겁니다. 부처님께서 그렇게 간곡하게 말씀하셨는데 따로 형상을 만들어 밖에도 대고 빌었습니까?

저 법당의 부처님 형상이 곧 내 형상이요, 부처님 마음이 내 마음이니 자성불에 귀의하고 자성불을 믿어야 하겠지요.

감당하기 힘든 일 닦쳐어요

문 지면을 통해서 스님의 말씀을 접하며 늘 감사함을 느낍니다. 하지만 요즘 저 자신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벅찬 일이 벌어져서 삶의 의욕마저 잃을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찾아 받고 말씀드릴까 하는 생각이 들지만 한편으로는 죽든 살든 ‘주인공 일어서 해!’ 하는 게 옳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가르침을 기다립니다.

내가 무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빌대로 되라’는 게 아닙니다. 무조건이 필만을 지극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야말로 지극하게 진심으로 믿고 ‘주인공! 너만이 할 수 있어!’ 한다면 다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 통한다더라 하면 그건 또 아니지요. 그러니까 죽든 살든 주인공이 알아서 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길 가는 길을 아는 계기가 있다는 말입니다. 무조건입니다. 이렇가 저렇가 붙지 않는 무조건이요.

염불·기도 가르쳐 주셨으면

문 저는 나름대로 수행에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버릇없는 말씀같지만 ‘에고’에 빠져서, 말하자면 똥 오줌을 제대로 못가리는 아이에게 똥 오줌을 가리라고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너만이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것

입니다.

그야말로 지극하게 진심으로 믿고 ‘주인공! 너만이 할 수 있어!’ 한다면 다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 통한다더라 하면 그건 또 아니지요. 그러니까 죽든 살든 주인공이 알아서 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길 가는 길을 아는 계기가 있다는 말입니다. 무조건입니다. 이렇가 저렇가 붙지 않는 무조건이요.

협찬 한마음

어서이론의 새책

생활 속의 불법 수행

삶의 진실에 다가서지 못한 젊은 또다른 병통입니다. '길을 찾는 이들과 대행 스님'이 나누어 책을 펴냈습니다. 삶의 진실에 대한 절절한 의문과 대행 스님의 大用心이 깃어낸 깨달음의 위함입니다.

이 책이 소개된 380여 항목의 질의 응답은 현대불교신문 창간호(94. 10.15)부터 143호(97. 9. 24)까지 길을 묻는 이에게 1년에 연재되었던 것을 주제별로 묶은 것입니다.

최근의 절박한 경제난 타격을 한 평민으로 대행 스님의 가르침을 널리 나누고자 5000원이라는 파격적인 가격으로 독자 여러분에게 다가갑니다. 불필요한 경비만 제거하고 저당유지를 사용한 것도 현재의 난국을 승기롭게 극복하려는 어서이론의 의지를 실린한 것입니다.

어서이론은 '불은 내 한 치의 어둠도 없게 전라된다'는 정신으로 시대의 빛이 될 책들을 만들었습니다.
주소: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전화: (02)737-0695, 팩스: (02)737-0696